

한국기독교장로회

회보

◎ 주 요 내 용 ◎

권두언.....	안병무... 1
장 단.....	이종영... 2
논 단.....	이장식... 3
대 담..... 5
새역사 25주년 총회주일..... 7
예루살렘 운동의 전망.....	김관석... 8
선교교육위원회의 보고..... 9
경기도회 개척교회 보고..... 10
소 식..... 11

발행인: 박 재 물

발행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36-46

1965년 6월 2일 등록 제 492호

간행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전화 29-6791 대체 500470번

인쇄인: 이 승 하

□ 권두언 □

復活은 十字架의 表面

안 병 무



〈박사·선교교육원원장〉

자주 十字架 사건과 復活을 떼어 놓고 생각하고 설명하는 버릇이 있다. 그러나 十字架와 復活은 두가지 事件이 아니라 한 事件의 表面인 것이다. 그것은 十字架 사건 없이 부활이 있을수 없었으며 부활 事件 없이 十字架의 意味가 우리에게 전달 될수가 없었다는 意味에서 만도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예수 當時를 전후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메시아 운동을 일으키다가 (그것은 로마 정복에게는 반란운동으로 취급됐다) 十字架에 처형됐다. 예수도 그들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유독 예수의 十字架만이

우리의 운명과 결부된 것은 부활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부활은 그리스도의 자신의 核心이며 부활은 바로 그리스도교가 선 반석이 되고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교리상으로도 그렇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바울에게서 분명하다. 그는 부활한 예수의 目擊者임을 담당하게 고백하고 예수의 부활이 새 人類탄생의 첫 열매라고 보았다.

그러나 바울은 그만 못지 않게 十字架를 강조한다. 아니 그는 오히려 十字架의 意味에 더 초점을 둔다. 그가 自身은 十字架외에는 아무것도 알리고 하지 않으려다 (고전2:2) 고한 선언은 유명하지만 十字架와 부활을 동시에 말하는 경우도 많은데 오직 十字架만 그리스도교의 내용의 전부처럼 선언하는 경우도 무수하다. (예고전1:23, 갈3:1, 빌3:18 등등) 그 까닭은 十字架의 사건이 우리를 모든 기존체제와 죄에서 해방한 까닭도 있다. (로마7:6) 그러나 바울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 계속 고백된다.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의 고난에 의식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고후4:10-11) 그것은 말만이 아니다. 그는 예수의 뒤를 따르기 위해 몸에 「예수의 낙인」이 찍힌 것이다 (갈6:17). 그러한 意味에서 갈라디야 2:20절의 뜻은 주목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읍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왜 함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린것만 말하고 그 그리스도가 그와 더불어 산다고 했을까! 부활한 예수가 아니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바울에게서 다음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것은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부활이 아니라 비록 부활에 의해 죽은 몸이 살아 났더라도 十字架에 달린 예수에게 접촉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 그것은 이땅위에 수난당하는 자들의 비명이 계속되는 한 달리 할수 없는 우리의「수명」이다.